

[보도자료] 쿠팡이츠서비스, 2인 각자 대표 체제 출범 김명규 대표 신규 선임

2022. 1. 18.



- 쿠팡에서 물류정책 전략기획 등 담당한 김명규 전무, 쿠팡이츠서비스 대표로 선임
- 신임 김명규 대표 '서비스 정책전략', 장기환 대표 '비즈니스 운영 총괄' 담당

2022. 1. 18. 서울 - 쿠팡의 자회사인 쿠팡이츠서비스는 2인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출범하며, 김명규 대표이사를 새로 선임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임 김 대표이사는 쿠팡에서 물류정책실장을 맡으며 중장기 전략 기획, 지역투자과 일자리 창출, 서비스 및 안전 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 등을 담당했다.

이번 인사를 통해 신임 김 대표이사는 배달물류 관련자(고객과 상점주, 배달파트너 등)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운영을 정착시키고, 산업의 발전을 위한 개선사항들에 대해 대응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쿠팡이츠서비스 출범 이후 쿠팡이츠서비스를 총괄했던 장기환 대표이사는 치타배달 등 특화 서비스 강화와 사업의 성장을 주도하게 된다.

쿠팡이츠는 고객 만족도가 높은 '한집배달', '치타배달' 등을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맛집 가이드 서버이 '블루리본' 뱃지 등을 운영하고 있다. 쿠팡이츠서비스는 배달파트너의 안전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시 등과 협력하여 안전 교육을 강화하였고, 전국 배달파트너 8000여명에게 헬멧을 지급하는 등 안전 배달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김 신임 대표이사는 “쿠팡에서 쌓은 경험을 토대로 쿠팡이츠서비스가 ‘고객이 와우(Wow)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Wow the Customer)는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신임 대표는 삼성카드, 네이버 대외협력실 등을 거쳐 2014년부터 쿠팡에 합류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왔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